

보도시점 : 2023. 7. 30.(일) 11:00 이후(7. 31.(월) 조간) / 배포 : 2023. 7. 28.(금)

한-에티오피아 간 여객기 운항 증가

- 7월 28일 한-에티오피아 간 항공회담 개최... 여객 운수권 증대 합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28일 에티오피아 민간항공청과 영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*하여,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였다.

* (참석자)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, 에티오피아 민간항공청 국장

○ 에티오피아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유일한 직항편을 운항하는 나라로, 아디스아바바 허브공항을 통해 인근 탄자니아, 남아공, 나이지리아 등으로 이동하는 여객의 수요가 있는 노선이다.

□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과 화물을 합해 일주일에 7회 운항하던 기존 운수권에 더해 여객을 일주일에 2회 추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 아프리카 간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.

* (현행) 여객·화물 3/4/5자유 주 7회 → (변경) 여객·화물 3/4/5자유 주 7회 + 여객 직항 주 2회

* ('23년 하계) 한국측 비운항 / 에티오피아측 여객 주4회, 화물 주3회

□ 국토교통부 김남균 국제항공과장은 “이번 합의로 아프리카를 운항하는 유일한 노선인 인천-아디스아바바 간 운항편수가 증가하여 기업가·교민 등이 보다 편리한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희 (044-201-4208)

1. 협정내용

체결 : '10.7.2 가서명(잠정발효 '10.7.2 MOU), '17.11.6 발효

지정항공사 : 복수제(다수)

- 우리측 :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
- 에티오피아측 : 에티오피안항공

노선구조

구 분	출발지점	중간지점	목적지점	이원지점
한국측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	에티오피아 내 제지점	제지점
에티오피아측	에티오피아 내 제지점	제지점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

공급력 : 여객 · 화물 3/4/5자유 주7회

운임 및 요금 : 신고제

2. 운항현황

<< '23년 하계 기준 >>

한국측 : 비운항

에티오피아측 : 여객 주4회, 화물 주3회

- 에티오피아항공
 - (여객) 아디스아바바/인천/나리타/인천/아디스아바바, 주4회, B788(270)
 - (화물) 아디스아바바/오슬로/인천/(홍콩), 주3회, B772(100)